

FFWPU's Dr. Hak Ja Han Moon Donates 200,000 Dollars to Hurricane Site Vanuatu

Yun Ki Choi
March 16, 2015

[Segye Times]

Dr. Hak Ja Han Moon Donates 200,000 Dollars to Hurricane Site Vanuatu

한학자 총재, 태풍 강타 바누아투에 20만弗 성금

자원봉사단도 급파 지시

정성수 종교전문기자 tais@segye.com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학자(사진) 총재가 초강력 사이클론 '팜'이 강타해 큰 피해를 입은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에 구호성금 20만달러(약 2억2000만원)를 기탁하기로 했다고 가정연합

김만호 세계본부장이 16일 밝혔다. 한 총재는 현지에 재난구조를 위한 자원봉사 요원도 급파하라고 지시했다. 세계본부 측은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권 신자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구성해 바누아투에 보낼 예정이다. 바누아투는 호주 동쪽에 있는 인구 25만명, 1인당 국내총생산(GDP) 3000달러의 작은 섬나라로, 가정연합 선교사



들이 파송돼 활동하고 있다.

한 총재는 2013년 11월에는 초강력 태풍 '하이옌'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에 100만달러(약 11억 원)어치의 구호물품과 자원봉사단을 보냈다. 또 아프리카와 동남아 등에서 빈민구제사업과 난민캠프 어린이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등 빈곤국가와 분쟁국가들에 각별히 신경을 써왔다.

Volunteer Organization on Orders for Urgent Dispatch

On the 16th,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President Dr. Hak Ja Han Moon (pictured) donated 200,000 dollars (about 220,000,000 won) in relief funds to the South Pacific island nation of Vanuatu, which was massively devastated by cyclone Pam, according to Family Federation International Headquarters Director-General Man-Ho Kim.

Dr. Han also called for the urgent dispatch of disaster relief volunteers to be sent to Vanuatu. The volunteer organization of the world headquarters is made up mainly of Korean, Japanese and Philippine members, and is scheduled to be dispatched to Vanuatu shortly. Vanuatu is a small island nation located east of Australia with a population of 250,000 people and a GDP of 3,000 dollars per capita. Family Federation evangelists are living and working in the island nation.

In November, 2013, when Hurricane Haiyan struck the Philippines, Dr. Han sent out 1,000,000 dollars (about 1.1 billion won) in relief supplies and relief workers. She has also carried out many relief projects for poor and war-torn countries throughout Africa and Southeast Asia, including educational projects for children in refugee camps.

[Sports World]

President Hak Ja Han Moon Donates 200,000 Dollars to Hurricane Site Vanuatu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학자 총재

태풍 강타 바누아투에 20만弗 성금

[강민영 기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학자(사진) 총재가 초강력 사이클론 '팜'이 강타해 큰 피해를 입은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에 구호성금 20만달러(약 2억2000만원)를 기탁하기로 했다고 가정연합 김만호 세계본부장이 16일 밝혔다.

한 총재는 현지에 재난구조를 위한 자원봉사 요원도 급파하라고 지시했다. 세계본부 측은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권 신자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구성해 바누아투에 보낼 예정이다.

바누아투는 호주 동쪽에 있는 인구 25만명, 1인당 국내총생산(GDP) 3000달러의 작은 섬나라



초강력 태풍 '하이옌'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에 100만달러(약 11억원)어치의 구호물품과 자원봉사단을 보냈다. 또 아프리카와 동남아 등에서 빈민구제사업과 난민캠프 어린이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등 빈곤국가와 분쟁국가들에 각별히 신경을 써왔다.

로, 가정연합 선교사들이 파송돼 활동하고 있다.

한 총재는 2013년 11월 에는

mykang@

sportsworldi.com